

청송 지역어 용언 어간 ‘시[H]-, 시[R]-, 시[F]-’의 변화*

김세환**

— || 차례 || —

- I. 서론
- II. 기본적 논의
- III. ‘시[H]-, 시[R]-, 시[F]-’의 변화
 - 3.1. ‘시[H]-’의 변화
 - 3.2. ‘시[R]-’의 변화
 - 3.3. ‘시[F]-’의 변화
- 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경북 청송 지역어의 ‘시[H]-, 시[R]-, 시[F]-’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정적 고조인 ‘시[H]-’: 쓰다(書), 쓰다(用), 시다(酸), 켜다(燈)

상승조인 ‘시[R]-’: 쉬다(傷), 쉬다(呼), 쉬다(休), 세다(強)

하강조인 ‘시[F]-’: 썩다(煮)

‘시[H]-’와 ‘시[R]-’는 각 그룹 내에서 음소와 성조가 모두 동일한 어간이 여럿 있으

* “이 연구는 201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영문: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2019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며, ‘시[F]-’는 하나의 어간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 그룹은 음소적으로만 동일하며, 성조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에는 각 그룹 간에는, 음소만 동일한 경우와 음소, 성조가 모두 동일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들의 변화를 고찰할 때, 중세 국어 어형과 대비하면서 음소와 성조를 함께 살피며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변화에는 이중모음 ‘위, 외’의 변화, ‘스>시’의 변화, ㅎ-구개음화, 모음 상승, 활용형의 재분석, 성조의 변화, 상승조의 하강 조화 등이 적용되었다.

주제어: 청송 지역어, 재분석, 동음이의어, 용언 어간, 활용, 성조

I. 서론

이 글은 경북 청송 지역어에서 음소적인 정보는 동일하나, 운소적 정보는 달라, 진정한 의미에서 동음이의어는 될 수 없으나, 그 음운론적인 변화 과정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음소적 동의어인, ‘시[H]-, 시[R]-, 시[F]-’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음운현상이 관련되어 있는바, 어두 경음의 문제, 전설모음화, 이중모음의 변화, ㅎ-구개음화, 성조의 변화, 하강조의 음절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다. 이 세 부류의 용언 어간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

1) 본고의 자료는 김세환(2012)에서 가져온 것이다.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제보자 수의 문제, 체록 시점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 논문은 전통방언학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지역어 제보자를 선정된 것이며, 체록 시점의 경우, 중세국어와의 시간적 간극을 고려한다면, 비교 대상의 한 측면으로의 성격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사회언어학적인 방법론을 음운사, 방언사의 연구에 적극 도입할 여지는 있다.

- (1) 가. 고정적 고조인 ‘시[H]-’(쓰다(書), 쓰다(用), 시다(酸), 켜다(燈))
 나. 상승조인 ‘시[R]-’((쉬다(傷), 쉬다(呼), 쉬다(休), 세다(強))
 다. 하강조인 ‘시[F]-’(씌다(煮))

(1가)는 성조가 고정적 고조로 나타나는 ‘시[H]-’이며, (1나)는 성조가 상승조로 나타나는 ‘시[R]-’이며, (1다)는 성조가 하강조로 나타나는 ‘시[F]-’이다. (1가, 나)는 각각의 그룹 내에서는 성조까지 동일한 동음이의어를 이루고 있으며, (1가, 나, 다) 각 그룹 간에는 음소적으로는 모두 ‘시-’로 실현되며, 성조는 각각 고조, 상승조, 하강조로 나타난다. 따라서 동남방언에서 음소와 운소를 함께 고려할 때, (1)에 제시된 모든 ‘시-’가 동음이의어가 될 수는 없다. 성조에서 각각 ‘고정적 고조, 상승조, 하강조’ 등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임석규(2004: 67-68)에서는 동남방언에서 최소대립쌍을 제시할 때, 성조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최소대립쌍의 성격을 보았을 때,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고정적 고조를 보이는 ‘글:걸’은 최소대립쌍이 될 수 있지만, 고정적 고조인 ‘털’과 유동적 고조인 ‘털’은 최소대립쌍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1)에 제시된 어간들은 각각의 그룹끼리만 동음이의어가 된다.

본고는 (1)에 나타나는 어휘들의 변화를 살펴보되, 중세국어에 확인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²⁾ 중세국어와의 대비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³⁾

2) 방언간 비교와 내적재구 등을 통해 동남방언에도 중세 국어의 음운 ‘빙, △’의 존재, 모음 체계의 재구 등이 이루어졌다(최명옥 1998 나: 159-169, 최명옥 1982: 12-16). 선대형을 직접 알 수 없으므로 문헌 자료에 의지하여 대략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3) 아래 표는 김세환(2012: 부록)에서 발췌하여 재조정한 것이다. 거기에서 고정적 고조

(2)

지역어	지역어 성조	중세 성조	중세 어형	표준어
시-	H	去	스-, 쓰-	쓰다(書)
		去	쁘-, 쓰-, 스-	쓰다(用)
		平	식-	시다(酸)
		平	혀-	켜다(燈)
	R	上	쉬-	쉬다(傷)
		上	쉬-	쉬다(呼)
		上	쉬-	쉬다(休)
		上	세-	세다(強)
	F	上	쇠-, 썩-	썩다(烝)

위 표를 보면 고정적 고조를 보이는 ‘시[H]-’는 중세 국어의 거성과, 평성에 대응되며, 상승조를 보이는 ‘시[R]-’는 중세 국어의 상성에 대응되며, 하강조를 보이는 ‘시[F]-’는 역시 중세 국어의 상성에 대응된다. 음소의 관점과 성조의 관점에서 볼 때, 규칙적인 대응을 보이는 면도 있고, 불규칙적인 대응을 보이는 면도 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의 상성은 위 표에 한정해 볼 때, 모두 상승조로 대응되는 점은 규칙적이다. 반면, 다른 부분들은 대응이 일정하지 않은 면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음소적 변화와 운소적 변화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각 그룹별로 동음이의어가 되어 가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하강조의 음절 문제와 이중모음의 처리 문제, ‘ㅅ:ㅆ’의 문제에 관하여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1)에 제시된 순서대로 ‘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4장에서는 음소의 변화와 성조

를 ‘H₂’로 나타낸 것을 여기서는 ‘H’로 나타낸 차이가 있다.

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II. 기본적 논의

이 장에서는 하강조의 음절 문제와 이중모음의 처리, 그리고 ‘스:쓰’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강조는 1음절로 보지 않으면, 어간의 음소를 ‘시-’로 볼 수 없어서,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모음은 (2)의 표를 보면 ‘시-(쓰다, 書), 시-(쓰다, 用)’를 제외하고는 모든 어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강조는 임석규(2020: 56-60)에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결론은 하강조는 하나의 음절에 실현되는 성조이며, 2음절의 ‘HL’이 아닌 1음절의 ‘F’라는 것이다. 먼저 하강조도 상승조나 고정적 고조 뒤, 즉 비어두에서 짧아짐을 논의함으로써, 비어두에서 짧아지는 상승조와 동일하게 1음절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를 하나씩만 들면, 영주 지역어에서 ‘수박한 덩이’의 뜻을 지닌 분류사 ‘디(덩이)’는 상승조를 지닌 수관형사 ‘두[R]’(二)와 결합할 때, ‘두디[RH]’와 같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고조로 나타난다. 또한 고정적 고조를 지닌 수관형사 ‘열[H]’(十)과 결합할 때, ‘열디[HH]’와 같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고조로 나타난다. 둘째, 끝에서 두번째에 고조가 놓이는 울동규칙이 적용되는 경북서부방언에서 ‘잡혜고[LFL]’는 ‘잡혜에 고[LHLL]’로 보아서는 설명할 수 없다. 셋째, ‘잡히고[LFL]>잡혜고[LFL]’의 변화를 설명할 때, 하강조를 1음절로 보는 것이 변화 설명에 유리하다. 넷째, ‘잡히고[LFL]>잡혜고[LFL]’의 변화에서 ‘히>혜’와 관련하여, ‘히’나 ‘혜’를 1음절로 보아, ‘잡히고[LFL]>잡혜고[LFL]’로 보는 것이, ‘히’나 ‘혜’를 2음절로 보아, ‘잡히이고[LHLL]>잡히에고[LHLL]’로 보는 것보다

변화 설명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다섯째, 김봉국(2004:48-49)에 의하면, 음라우트가 적용된 ‘요담이[LFLL]>요뎨이[LFLL]’도 하강조를 1음절로 보아야 ‘*요다뎨이[LLHL]’가 되지 않는다. 여섯째, 김봉국(2010:442)에서는 상향 이중모음화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하강조와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다.

- (3) 가. 내일>날:>날:(來日)
 나. 비행기>비항기(飛行機)
 다. 도깨비>도까비(鬼)
 cf. 1음절의 ‘날:’, 1음절의 ‘널[F]’

(3)은 위 논의에서 상향 이중모음화가 된 것으로 설명하는바, ‘애’ 모음이 ‘야’ 모음으로 바뀐 것이 바로 그러한 변화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상향 이중모음화로 설명을 하려면 하나의 음절의 모음 ‘애’가 하나의 음절의 ‘야’로 실현되는 것을 전제한다. 즉 (3나)의 ‘비행기>비항기’나 (3다)의 ‘도깨비>도까비’와 함께 (3가)의 ‘날:>날:’도 그러한 변화를 함께 겪은 것으로 설명하게 된다. 그런데 이 ‘날:’은 동남방언에서는 하강조를 지닌 ‘널[F]’로 나타난다. 이는 인접 방언에서 장음을 지닌 1음절 어간을, 또다른 인접 방언에서는 하강조를 지닌 1음절 어간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준다.

이중모음과 관련하여, 하향성 이중모음은 정인호(2004: 124-125)에 정리된 바에 따라 ‘Vi’로 보고자 한다. 즉, 계림유사의 ‘剪刀曰割子蓋’에서 ‘割子蓋’의 ‘蓋’의 모음을 ‘ai’로 재구하였다. 그리고 김종규(1989: 96-120)에서 중세국어의 ‘애’형 이중모음은 활음화, 활음삼입, 모음조화 등을 볼 때 /Vi/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병근(2003: 48)에서도 ‘울무’

를 ‘*올미[olmei]’로 재구하여 역시 ‘Vi’로 보았다. 정인호(2004: 32-59)에서도 ‘Vi’로 보면서, ‘이, 애, 예, 외’ 등은 하강 이중모음으로, ‘위, 의’ 등은 부동 이중모음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김봉국(2006: 180)에서도 ‘위, 외’의 음가 변화를 설명하면서 ‘위’의 변화는 ‘ui>wi’ 또는 ‘ui→wi多(그 외의 환경)→wi, ui→ü(중자음)→wi’로 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설명하였고, ‘외’는 ‘oi(oy)>ö>we’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이중모음을 ‘ui, oi(oy)’로 설명하였다.

‘ㅍ:ㅅ’과 관련하여, 이기문(1998: 83)에서는 고대국어에는 된소리 계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만약 고대국어에 된소리가 있었다면, 중국 중고음(中古音)의 전탁 계열이 한국 한자음에 된소리로 반영되었을텐데, 고대국어에 된소리가 없었으므로, 이 계열의 음은 평음으로 반영되었다. 이와 달리, 유기음의 경우에는 고대국어에 유기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중국 중고음의 차청이, 불규칙적이긴 하나, 한국 한자음에 유기음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국어에 된소리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덕호(1993:93)에서는 어두 ‘ㅅ’ 비경음 지역은 ‘청도, 월성, 경산, 영천, 영일’이고, 이 지역은 전이지역에 속하며, ‘쑤신다, 쌀밥’ 두 어휘의 분포를 통해 어두 ‘ㅅ’ 경음화의 진원지를 서남 방언권으로 추측하였다. 김주원(1984: 17)에서는 <念佛普勸文>에 나타나는 ‘ㅅ:ㅍ’(슬고~슬며~썰고(燒))의 혼기를 통해 경북 북부지역에 ㅅ-계 경음화 시기를 18세기경으로 추정하였으며, 백두현(1992: 294-295)에서는 경북 서북지역의 간본인 <語錄解>, <閩壺是議方>에서 높은 빈도로 ‘ㅍ’ 표기가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현재 ‘ㅍ’이 존재하는 경북 서북지역에는 17세기에 이미 ‘ㅅ’의 경음화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오종갑(2011: 250-251)에서는 ‘ㅍ>ㅅ’ 변화가 100%로 나타나는 지역

이 ‘청송, 영덕, 영일,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월성, 양산’ 등으로, 경남 양산을 제외하면 모두 경북 동남부임을 보아, ‘ㅁ>ㅅ’ 평음화의 개신지는 경북 동남부로 보았다. 또한 단자음 중 ‘ㅅ’을 제외한 폐쇄음의 경음화 개신지는 경북 동남부(월성, 달성, 경산, 청도, 영천)와 경남 동북부(양산, 밀양, 합천, 창녕, 울주)로 보았으며, 단자음 ‘ㅅ’의 경음화 개신지는 경남 서남부로 보았다. 동일한 경음화인데 이렇게 폐쇄음의 경음화 개신지(경북 동남, 경남 동북)와 마찰음의 경음화 개신지(경남 서부)가 차이가 나는 것이 흥미롭다.

즉 전체적으로 고대국어의 직접적 후대형인 동남방언에서 ‘ㅅ:ㅆ’의 대립이 없는 지역은 애초부터 경음화의 개신파가 닿지 않아 경음화를 겪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평음 ‘ㅅ’가 ‘ㅆ’로 변하였다가 다시 ‘ㅅ’로 변화했다고 보는 것보다 자연스럽다. 15세기 이후 국어사에서 어두 경음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이 ‘ㅅ>ㅆ>ㅅ’의 변화를 겪을, 방언 내적, 외적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⁴⁾

Ⅲ. ‘시[H]-, 시[R]-, 시[F]-’의 변화

3.1. ‘시[H]-’의 변화

이 지역어에서 (2)에 제시된 어형 중 고정적 고조를 지닌 어간으로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어간에는 ‘시-(쓰다, 書), 시-(쓰다, 用), 시-(시다, 酸), 시-(켜다, 燈)’ 등이 있다. 이들 중 ‘시-(쓰다, 書), 시-(쓰다, 用)’를

4) 박신명(2013: 10)에 의하면, 청송 지역어는 현재 ‘ㅆ’이 존재하는 지역과 ‘ㅅ’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혼재하나, 이 논문에서 다루는 자료는 ‘ㅆ’이 없는 지역의 자료이다.

표준어, 지역어 성조, 중세 국어 성조, 중세 국어 어형 순서로 함께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 (4) 가. 쓰다(書), 고정적 고조, 거성, 스-, 쓰-
 나. 쓰다(用), 고정적 고조, 거성, 쓰-, 쓰-, 스-

(4)는 이 지역어에서 ‘시[H]-’로 나타나는 용언 어간으로, (4가)는 ‘시[H]-’(쓰다, 書)를 나타낸 것이고, (4나)는 ‘시[H]-’(쓰다, 用)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어두의 경음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어에는 경음화가 진행되지 않은 듯하다. 최명옥(1998: 426)에서도 고대 국어의 발생지인 월성 지역과 낙동강 동쪽에 ‘쓰’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 지역이 중앙어의 먼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스>쓰’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세 국어와 대응관계를 보면, 마찰음 뒤에서 전설모음화가 적용되어 ‘스>시’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백두현(1992: 257-263)에는 ‘스>시’의 변화가 처음 나타나는 문헌을 <十九史略諺解>(1832)에 처음 나타나며 <正蒙類語>(1884)에도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5) 가.甚심첩심호고(十九 2:38b), 구실(玉)(十九 2:87a)
 나. 구실 쥬珠(正蒙 5a), 힘실 강疆(正蒙 28b)

(5가)는 <십구사략언해>의 예이고, (5나)는 <정몽유어>의 예이다. (5가, 나) 모두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5가)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에 모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예들을 볼 때, ‘스>시’의 변화는 동남방언에서 19세기 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형태소 경계에서도 ‘스>시’는 발견되는바(백두현 1992: 259), ‘업시면(<信
徒日用要集 2b>), 감동하야 와시니(<嶺南三綱錄 7:5a>)’ 등의 예가 그것
이다. 이 중에서 <信徒日用要集>은 경북 청도에서 간행된 19세기 말의
문헌으로 추정되며, <嶺南三綱錄>은 20세기 초에 대구에서 간행된 것이
므로, ‘스>시’ 변화 역시 19세기 초 형태소 내부에서 먼저 발생되어 형태
소 경계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조와 관련하여, 중세 국어의 성조 거성은 동남방언에 일반적으로 고
정적 고조로 대응된다. (4가, 나)의 예를 보면 이 일반적인 대응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시[Hi]-’이면서 다음에 붙 ‘시-(시다, 酸), 시-(켜
다, 燈)’는 중세 국어의 성조가 평성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다.

아래에 이러한 ‘시-(시다, 酸), 시-(켜다, 燈)’를 표준어, 지역어 성조,
중세 국어 성조, 중세 국어 어형 순서로 함께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6) 가. 시다(酸), 고정적 고조, 평성, 시-
나. 켜다(燈), 고정적 고조, 평성, 혀-

(6가)는 ‘시[Hi]-’(시다, 酸)’를 나타낸 것이고, (6나)는 ‘시[Hi]-’(켜다,
燈)’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6가)를 보면 중세 국어 어형은 ‘시-’로 나타
나, 이중모음의 변화가 보인다. ‘의’는 부동 이중모음으로써 핵모음이 지역
에 따라 달리 정해져 ‘으’ 또는 ‘이’로 변화하게 된다. 중세 국어 ‘시-’를
고려하면 이 지역어에서는 ‘으’가 탈락하여, ‘시-’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혹 모음 ‘이’가 탈락하여 ‘스>시’를 겪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국방언자
료집 VII>에 의하면, 동일하게 ‘의’를 지닌 ‘의자(椅子)’의 경우, 경북 전역
에서 ‘이자[HL]’로 나타나며, ‘의복(衣服)’의 경우에는 경북 균위를 제외하
고, 모두 ‘이복[HL]’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중모음 ‘의’ 중에서

‘으’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식>스>시’의 변화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6나) ‘켜다(燈)’는 중세 국어 어형은 ‘혀-’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어에서도 ‘시[H]-’로도 나타나지만, ‘혀고[HL], 혀라[HH]’로도 나타나, 중세 어형과 동일한 어간 ‘혀-’도 존재한다. ‘시[H]-’의 변화 과정에는 ㅎ-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⁵⁾ ‘쓰’가 존재하는 지역은 ‘혀->써-’ 일터이지만, 이 지역은 ‘혀->셔-’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변화는 자음 뒤 반모음이 탈락하여 ‘셔-’가 되었다. 이후에는 ‘셔->스->시-’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셔->스-’의 변화는 ‘셔--어→셔’에서 아-계 어미 결합형 ‘셔’를 ‘스--어→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재분석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과정은 3.1에서 보았듯이, 동남방언에서 ‘스>시’의 변화가 19세기 전반에 있었기 때문에 전설모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오종갑(1999: 19-20)에 의하면 ‘의>이’ 변화가 100%로 나타나는 지역의 대부분은 영남지역으로서, 무려 21개 지역에서 100%의 적용률을 보인다. 그런데 이것의 분포를 보면 경북과 경남이 구분되며, 그 사이는 100% 미만의 지역이 개재되어 있어서 경북과 경남에 각각, 이 변화의 개신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5) ㅎ-구개음화와 관련하여, 김주원(1997: 38-40)에서는 ‘상일흥 鄉名’〈救荒撮要 3a〉의 예를 제시하며, 그것의 연대를 1554년에서 1584년 사이로 봄으로써, 1560년대에는 ㅎ-구개음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백두현(1992: 345)에서는 ‘나모 지는 길호로 셔 가고’(徑引)〈杜詩諺解 重刊本 14:30a〉에 나타나 〈杜詩諺解 初刊本〉과 비교시 ‘혀>셔’의 변화가 나타나 17세기 전기에 동남 방언에서 ㅎ-구개음화가 존재하였다고 보았다.

3.2. ‘시[R]-’의 변화

이 지역어에서 (2)에 제시된 어형 중 상승조를 지닌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시[R]-’에는 ‘시-(쉬다, 傷), 시-(쉬다, 呼), 시-(쉬다, 休), 시-(세다, 強)’ 등이 있다. 이들을 표준어, 지역어 성조, 중세 국어 성조, 중세 국어 어형 순서로 함께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7) 가. 쉬다(傷, 呼, 休), 상승조, 상성, 쉬-
나. 세다(強), 상승조, 상성, 세-

(7가)는 ‘쉬다(傷, 呼, 休)’를 나타낸 것이고, (7나)는 ‘세다(強)’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의 성조는 모두 상승조로 나타나며, 중세 국어 성조 역시 상성으로 나타나, 성조의 대응은 일반적인 대응으로 나타난다. (7가)의 ‘쉬->시-’는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위’는 부동 이중모음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변화와 관련하여 정인호(2004: 130)에서는 어두에서, ‘ui>wi>i’의 변화를 보이거나,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겪어 ‘ui>ü, uui>(i)>i’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봉국(2006: 180)에서는 ‘위’가 중자음 뒤에서는 ‘ui>ü’의 변화를 그밖의 환경에서는 ‘ui>wi’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시[R]-’의 변화에 적용해 보면, 중자음 뒤에서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겪어 ‘ui>ü>wi>i’ 정도의 변화를 상정해 볼 수 있다.⁶⁾

성조와 관련하여 (7가)는 활용형의 성조가 아-계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강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6) 김세환(2012: 28)에 의하면, 이 지역어에 ‘기빱(긱빱), 기머거리(귀머거리), 디안(뒤안)’ 등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확인된다.

- (8) 가. 시고[RL], 시머[RL], 시[F](쉬다, 傷, 呼, 休)
 나. 디고[RL], 디머[RL], 디[F](데다, 火傷)
 다. 미고[RL], 미머[RL], 미[F](메다, 負)

(8가)는 ‘쉬다’의 활용형을 보인 것인데, ‘시-+-어’의 경우에는 ‘시[F]’로 나타난다. 이 지역어에는 활용시에, 상승조가 하강조로 성조 변동하는 예들이 있다. (8나, 다)가 그것이다. 기저형의 성조는 상승조이며, 자음어미, 으-계 어미 결합시에는 상승조로 나타나다가, 아-계 어미 결합시에는 하강조로 나타나는 것이 (8가)의 ‘시[F]-’의 활용과 동일하다. 상승조가 활용형에서 하강조로 바뀌는 것은 저조와 고조가 병치되는 것이 상승조의 특성이라고 볼 때, 그것이 순서가 뒤바뀌면서 고조와 저조가 병치되는 하강조로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저형 자체가 하강조로 재구조화되는 ‘시[F]-’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3.3.에서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한다.

(7나)의 ‘시[R]-’ (세다, 強)에서는 이중모음 ‘ai’가 변화하여 ‘e’로 되고, 다시 ‘i’로 바뀐 것인데, 백두현(1992: 144-150)에 의하면, 19세기 말 자료로 볼 수 있는 <女士須之>, 등에 ‘자시(仔細)히니, 자시하고, 자시 보고’ 등이 나타나므로, ‘에>이’ 변화는 동남방언에서 19세기 말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오종갑(1999: 12)에 의하면 ‘에>이’ 변화의 개신지는 경북의 서쪽 지역인 문경, 상주 지역이다. 이 변화는, 위치는 다르기는 하지만,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에 의하여 모음이 ‘이’가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3. ‘시[F]-’의 변화

이 지역어에서 동음이의어로 존재하지 않지만, 3.1과 3.2에서 다룬, 고정적 고조, 상승조를 지닌 ‘시-’와 준동음이의어인, 하강조를 지닌 ‘시[F]-’(세다, 强)를 표준어, 지역어 성조, 중세 국어 성조, 중세 국어 어형 순서로 함께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 가. 씨다(飡), 하강조, 상성, 쇠-, 뻘-

(9가)는 ‘시[F]-’(씨다, 飡)를 나타낸 것으로, 성조는 하강조로 나타나며, 중세 국어 어형의 모음은 ‘외’로 나타나며, 그 성조는 상성이었다. 앞서 밝혔듯이, 먼저 성조를 제외한 음소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중모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듯하다.

(10) 가. 외(oi)>외(ɔ)>웨(we)>에(e)>에(E)>이(i)

(10가)는 ‘시[F]-’의 모음의 변화만을 나타낸 것으로, 앞서 밝혔듯이, 김봉국(2006: 180)에서는 개화기 자료를 검토하면서 ‘oi(oy)>ö>we’를 설정하였고, 정인호(2004: 130)에서도 20세기 초 방언 자료를 검토하면서 동일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에는 자음 뒤에 반모음이 탈락하고, ‘ㄱ: ㄱ’의 합류에 이어 모음상승을 겪은 것이 (10가)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오>우’ 모음 상승이 먼저 일어나 ‘외>위>이’로 볼 수는 없을지 검토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역어에서는 ‘오>우’ 모음상승은 어두에서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변화는 배제된다.

(9가)의 ‘시[F]-’(씨다, 飡)는 기저형의 성조가 하강조로 나타난다. 하강

조의 생성과 관련하여, 우선 이 어간의 활용형과, 기저형에 하강조를 보이는 또다른 예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가. 신다[FL], 시머[FL], 시도[FL](씌다, 蒸)
 나. 찌다[FL], 찌머[FL], 찌도[FL](끼다, 煙)

(11가)는 ‘시[F]-’의 활용형이고, (11나)는 ‘찌[F]-’의 활용형이다. 이 두 어간은 모두 기저형에 하강조를 지니고 있다. 하강조가 새로 형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활용 패러다임 전체에 하강조가 성립된 것은 특이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8)에 제시된 활용형들이 주목을 끈다. (8)에 제시된 ‘시[R]-’(쉬다, 傷, 呼, 休), ‘디[R]-’(데다, 火傷), ‘미[R]-’(메다, 負)의 활용형을 보면 각각 ‘미고[RL], 미머[RL], 미[F]’, ‘디고[RL], 디머[RL], 디[F]’, ‘미고[RL], 미머[RL], 미[F]’ 등으로 나타난다. 즉 성조는 활용형에서 상승조와 하강조의 변동이 있다. 앞서 살핀 바로는 상승조인 저고조의 병치가 하강조인 고·저조의 병치로 바뀐 것으로 보았는데, (11)에 제시된 활용형은 그러한 변화 이후에 다시 변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9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시[F]-’(씌다, 蒸)의 중세 국어 어형의 성조는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2) 가. 시고[RL], 시머[RL], 시[R]
 나. 시고[RL], 시머[RL], 시[F]
 다. 시고[FL], 시머[FL], 시[F]

(12)는 하강조를 지닌 ‘시[F]-’(씌다, 蒸)의 변화 과정을 활용형을 통해 대략적으로 나타내 본 것이다. 변화의 순서는 (12가), (12나), (12다)의 순

서로 전개되었을 듯한데, (12나)의 단계가 바로 상승조를 지니면서 아-계 어미 결합형에만 하강조가 나타나는, (8가)에서와 같이 ‘시고[RL], 시머[RL], 시[F]’로 활용하는 ‘시[R]-’(쉬다, 傷, 呼, 休)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하강조가 활용패러다임 전체로 확대 적용된 것이 (12다)인 ‘시[F]-’(쓰다, 蒸)의 단계인 것이다. 2장에서 하강조를 살펴본 것에 대하여, 위 (12가, 나, 다)의 변화 단계의 존재는, 하강조가 하나의 음절에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2다)는 위와 같이 어간의 음절을 1음절로 파악하는 것이, 어간을 2음절로 파악하여, ‘시이고[HLL], 시이머[HLL], 시이[HL]’로 기술하는 것보다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유리하다. 만약 2음절로 파악하면, (12가, 나)의 단계에서 1음절이던 어간이 (12다)의 단계에서 2음절로 실현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F]-’는 1음절의 하강조를 지닌 어간으로 파악하고 위 (12가, 나, 다)와 같은 변화를 상정하고자 한다.

IV. 결론

이 글에서는 청송지역어에 나타나는 동음이의어와 준동음이의어인 ‘시[H]-, 시[R]-, 시[F]-’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시[H]-’에는 ‘쓰다, 書’, ‘쓰다, 用’, ‘시다, 酸’, ‘켜다, 燈’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쓰다, 書’, ‘쓰다, 用’는 성조의 변화 없이 ‘스>시’의 변화를 겪었다. ‘시다, 酸’는 성조의 변화와 이중모음의 변화를 겪었고, ‘켜다, 燈’는 ㅎ-구개음화와 자음 뒤 이중모음 탈락, 활용형의 재분석, ‘스>시’ 변화 등이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성조까지 동일한 동음이의어 ‘시[H]-’가 되었다.

다음으로 ‘시[R]-’에는 ‘쉬다, 傷’, ‘쉬다, 呼’, ‘쉬다, 休’, ‘세다, 強’ 등

이 있으며, ‘쉬다, 傷, 呼, 休’ 등은 모두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를 겪어 중 자음 뒤에서 ‘ui>ü>wi>i’의 변화를 겪었으며, 기저형의 성조는 변화를 겪지 않았다. ‘세다, 強’는 경북 서쪽에서 발생한 ‘에>이’ 변화를 겪었다.

마지막으로 ‘시[F-]’에는 ‘췌다, 烝’가 있는데, 여기는 이중모음이 ‘oi>ö>we’로 바뀐 뒤에, ‘ㄷ: ㅌ’ 합류와 에>이 상승을 겪었으며, 성조는 상승조에서 하강조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김덕호, 「어두 ㅅ 비경음 실현 지역의 지리언어학적 고찰」, 『어문논총』 제27집,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1993, pp.69-95.
- 김봉국, 「고모음 탈락 현상과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제43집, 국어학회, 2004, pp.37-61. (UCI : G704-000064,2004,.43,016)
- 김봉국, 「개화기 이후 국어의 ‘위, 외’ 음가와 그 변화」,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pp.155-191.
- 김봉국, 「상향이중모음화에 대하여」,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2010, pp.435-450.
- 김세환, 「청송 지역어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세환, 「경북방언의 성조」, 『방언학』 제28집, 한국방언학회, 2018, pp.63-81.
- 김종규,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제90집, 서울대 국어연구회, 1989.
- 김주원,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현상-몇몇 불서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6집, 영남대, 1984, pp.31-57.
- 김주원,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 제29집, 국어학회, 1997, pp.33-49.
- 박신명, 「경북 청송 지역어의 언어 분화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백두현,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1992.
- 오종갑,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성과 그 전개」, 『한민족어문학』 제35집, 한민족어문학회, 1999, pp.1-66.
- 오종갑, 「국어 방언에 반영된 어두경음화」, 『한민족어문학』 제5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pp.239-271. (UCI : G704-001066,2011,.58,006)
- 이기문,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1998.
- 이문규, 「성조론의 두 단계 음운 과정과 경상방언의 성조형 분석」, 『방언학』 제29집, 한국방언학회, 2019, pp.5-37.
- 이병근, 「‘울가미’의 어휘사」, 『국어학』 제41집, 국어학회, 2003, pp.25-57.
- 임석규, 「동남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제135집, 국어국문학회, 2003, pp.37-69.

- 임석규, 「성조 연구 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방언학』 제31집, 한국방언학회, 2020, pp.43-68.
- 정인호, 「하강이중모음과 부동이중모음의 음변화」, 『어문연구』 제32권 제2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pp.119-143. (UCI : G704-000452.2004.32.2.019)
- 최명옥, 『월성 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1982.
- 최명옥(1998ㄱ),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 최명옥(1998ㄴ),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Abstract

The change of 'si[H]-, si[R]-, si[F]-' in the
Cheongsong Subdialect

Kim, Seh-wan

This paper studies the verbal stems si[H]-, si[R]-, and si[F]- that exist as homonyms or semi-homonyms in the Cheongsong Subdialect. While si[H]- and si[R]- are homonyms in one group, si[F]- is in its own group. And these three groups represent the identities to each other in the only phonemically. They are semi-homonyms with respect to tone. In this paper I compare the phonemic and tonal changes with the verbal stems of Middle Korean. These changes include the change of the diphthongs uj and oj-, the change of si>si, h-palatalization, vowel-shift, the reanalysis of the conjugation, the change of tone, and the change of the Rising tone to the Falling tone.

Key Word : Cheongsong Subdialect, reanalysis, homonym, verbal stem, conjugation, tone

김세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 shkim93@yu.ac.kr

이 논문은 2020년 11월 5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

